구례군 의원도 확진…이개호 의원발 코로나 감염 43명

구례의회 임시회 무기한 연기
민주당 지역위 당직자 일괄 사퇴
전남 16·광주 24·전북 2·서울 1명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사무실 관련 코로나 19 집단·연쇄 감염 사태의 불똥이 구례 군의회로 튀었다.

확진 판정 받은 담양사무실 당직자와 식사 모임을 했던 군의원이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되면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임시회마저 무기한 연기됐다. 잇단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이 의원의 담양사무실 관련 확진자가 43명으로 늘자, 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는 사과문을 내고 당직자는 일괄사퇴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19일 오후 구례군의회 A의원(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군의원은 지난 13일 영광에서 지인 등 4명과 식사모임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모임에는 지난 14일 확진된 이개호 의원의 담양 사무실 당직자(홍보실장·전남 988번)가 참석했다.

A군의원은 당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담양에서는 이 의원 담양사무실 관련 확진자 1명(전남 1011번)이 추가됐다.

광주에서도 이 의원의 담양사무실발 연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광산구 중식당 관련 확진자(광주 2296, 2297번)가 나왔으며, 이들은 이 의원 수행비서(전남 989번·14일 확진)→담양 당원 등 7인 식당모임(7일)→광산구 중식당 확진자(광주 2275번·18일)를 거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이날 오후 5시까지 이 의원실 관련 확진자는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 담양 13명, 완도·나주·구례 각 1명 등 전남 16명, 광주 24명, 전북 2명, 서울 여의도 1명(이 의원)이다.

이 의원실 관련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게 되자, 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는 20일 사과문을 내고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했다.

이 의원의 국회의원 첫 확진, 방역수칙을 위반한 수행비서의 유흥주점(룸살롱) 술자리 그에 따른 연쇄 감염, 당직자들의 7인 식당 모임 등 잇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불어나고 4만5000 담양군민 전체가 코로나 19 검사를 받는 등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비등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담양지역위는 사과문에서 "코로나19의 지역 내 집단감염 및 확산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지역 내 큰 혼란을 일으킨 주요당직자들의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확진 판정에 이어 지역구 당직자 등을 중심으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한편 20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에서도 여직원(전남 1013번)이 확진됐다. 확진자의 배우자는 목포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이날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담양에 주소를 두고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전남 1008번)이 양성 판정 받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화이자 백신 25만회분 오늘 도착…총 175만회분 도입 완료

28일 25만회분, 5~6월 500만회분
얀센·모더나 백신 하반기 인도 예상

20일 오전 광주 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주민들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예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25만회분(12만5000명분)이 21일 오전 국내로 들어온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백신 25만회분이 내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화이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물량은 총 2600만회분(1300만명분)이다. 이 가운데 700만회분은 상반기에 국내에 인도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내일 25만회분이 들어오면 상반기 물량 700만회분 중 175만회분의 도입이 완료되고, 나머지 525만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 백신은 내주 수요일인 28일에도 25만회분이 들어오고, 5월에는 175만회분, 6월에는 325만회분이 들어온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종사자 등의 접종에 쓰이고 있다.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코로나19 예방백신은 총 7900만명분이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확보했고, 개별 제약사와는 6900만명분을 계약했다. 제약사별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3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 노바백스 2000만명분이다. 정부는 백신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얀센·모더나·노바백스 백신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 완료 뒤에 추가로 한 번 더 접종하는 '부스터 샷'(booster shot) 등에 대비해 백신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백신을 지원받고 나중에 갚는 방식의 '백신 스와프'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전체 농가 중 50세 이하 5% 불과

신민호 도의원 "농업기반 약화 예상…청년농업인 육성해야"

전남지역 농가 100가구 가운데 50세 이하는 단 5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식량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기반 유지를 위해서라도 청년농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최근 도의회에서 개최된 '청년정책 플랫폼(협의체) 운영 방안 토론회'(이하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농도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전남은 고령 농업인의 급속한 증가로 농업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남 전체 농가 14만3789가구 가운데 30세 이하는 0.1%, 50세 이하는 5%에 불과하다"며 "70대 이상이 51.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대로 가다가는 농도 전남의 농업기반이 붕괴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지 않으면 전남의 미래와 식량 안보는 불확실하다"며, "대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남 농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지역대학에 '농업사관학교 전공'을 개설해서 청년농업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새청무 벼' 전남 쌀 대표 품종으로 자리매김

전남도내 재배 면적 50% 이상…비·바람에 강하고 밥맛도 좋아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0일 "전남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벼 신품종 '새청무'가 올해 도내 벼 재배면적의 5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남 쌀 이미지 개선 및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청무 전남 대표 품종화 사업'은 올해 3년 차로 종자원 보급종 생산과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우량종자 증식사업을 통해 종자 4400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내년에는 재배면적이 10만ha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새청무 벼는 지난 2016년 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이다. 소비자는 밥맛, 미곡종합처리장(RPC)은 품질과 도정수율, 농업인은 수량과 재배안정성을 만족하는 보급종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해 잦은 강우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도복(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짐)이나 수발아(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가 발생하지 않아, 타 도에서도 보급종으로 선정되는 등 종자 수요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새청무 벼'를 개발한 전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신서호 연구사는 "농협·농업인·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새청무 벼를 통한 전남 쌀 생산성 향상과 명품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스마트 가전 'GIEL',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광주지역 중소기업 가전공동브랜드인 '지엘(GIEL)'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시는 20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GIEL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GIEL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후보 중 최초 상기도, 브랜드 신뢰도, 인지도, 충성도 등 7개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초 상기도(TOM, Top of Mind)는 특정 제품군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정도를 말한다.

GIEL은 광주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우수한 가전제품에 부여하는 가전 공동브랜드로, 광주(Gwangju)+지능(Intelligent)+전자(Electronics)를 조합해 '광주가 생산하는 지능형 가전브랜드', '광주가 보증하는 스마트가전'을 의미한다. 현재 ㈜인아, 디케이㈜ 등 24개 지역기업이 참여해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의류건조기, 발광다이오드(LED) 식물재배기, 펫드라이어 등 39개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주)오천투자대부
2020-금감원-2027 (대부업, 대부중개업)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 02-3145-8265
고정수입·안정투자
돈 놀분
문의.010-3605-5000
대출금리 최고 연24% 이내(연체금리 연24% 이내) 부대비용 있음
취급수수료 없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수기동)
대출시 귀하의 신용에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종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홈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당사 주식회사 제이제이인터내셔널은 2021년 4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주식회사 제이제이인터내셔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39-31(옥동)
청산인 이 정 관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영민(810516-X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6로 16 104동 1701호(중흥S클래스리버티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영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느단555호로 신청하여 2021년 4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4월 21일

• 상속인 : 1. 김길(430529-XXXXXXX) 나주시 세지면 세영로 50 (오봉리)
2. 이영순(570406-XXXXXXX) 나주시 세지면 세영로 50 (오봉리)
• 신고기간 : 2021. 4. 21.~ 2021. 6. 30.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김길의 주소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산 75
2. 분묘의 기수 : 4기
3. 개장 사유 :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6. 공고기간 : 2021년 4월 7일~ 2021년 7월 6일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공고인 : 이경탁 (010-3617-8008)
– 신고처 : 강진토탈장묘 (010-3130-1740)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30-1
8. 신고시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철,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이경탁 (010-3617-8008)
신고처 강진토탈장묘 (010-3130-1740)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30-1
2021년 4월 21일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1년 4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500,000,000원을 금 413,8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50,000주 중 보통주식 8,62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295,551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1. 4. 21.

주식회사 대광솔루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593 (중흥동)
대표이사 문 상 봉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조은전기이엔씨 (이하 "갑")와 주식회사 용주 (이하 "을")는(은) 2021년 4월 20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분할되는 부분의 "갑"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갑" **주식회사 조은전기이엔씨**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2, 406호 (광장동, 학산오피스텔)
사내이사 김 재 상

"을" **주식회사 용주**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시동길 36
대표이사 박 노 수

산행안내

4월25일(일)

▲광주kj산악회 4월25일(일) 남원 지리산 바래봉, 철쭉꽃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